

# 글로벌 저성장 시기 주요국 ECA의 대응과 동향

I. 공적수출금융 시장 동향 .....	1
II. 주요국 ECA들의 대응과 동향 .....	5
1. 주요국 ECA의 정책기조 .....	5
2. 주요 정책변화와 특징 .....	7
가. 공적 기능 강화 .....	7
나.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	8
다. 유럽 ECA의 직접 자금 공급 기능 강화 .....	9
라. 수출 간접 지원 상품 도입 확대 .....	10
III. 시사점 .....	11

확인 : 팀	장 김정만 (6255-5710) jmkim@koreaexim.go.kr
--------	--

작성 : 책임조사역 문성국 (3779-6675) sgmoon@koreaexim.go.kr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각국 ECA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정리·분석하여 당행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 I. 공적수출금융시장 동향

### □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에 따른 공적수출금융의 성장세 둔화

- 전 세계 수출액은 '15년 기준 16조 달러 규모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15년에는 감소세 시현

\* '08년 16.0조 달러 → '10년 15.2조 달러 → '13년 18.5조 달러 → '15년 16.3조 달러

- 주요 둔화 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성장모델이 내수시장 기반으로 전환 ②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 둔화 ③ 사회적 불평등 확대에 의한 세계화 반대 흐름 강화 ④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이 수출을 대체하는 경향 강화 ⑤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에너지 관련 교역 감소 등이 지적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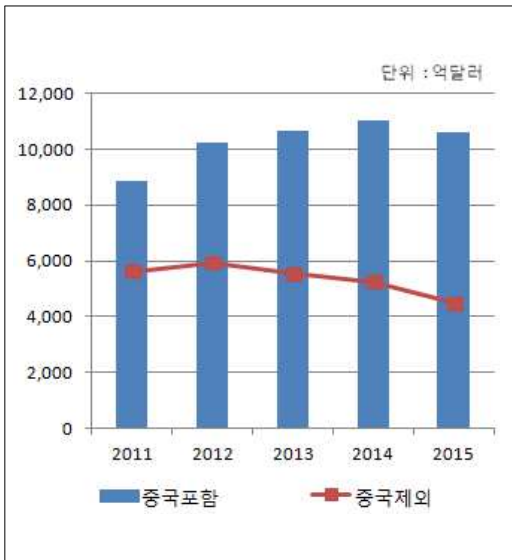
- 글로벌 교역규모 둔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G7, 한국 및 중국) ECA의 지원 규모는 '15년 기준 1조 6백억 달러 규모이며, 총 지원규모는 '12년(1조 2백억 달러) 이후 정체 상태

\* 지원 실적 : '12년 10,235억 달러 → '14년 11,047억 달러 → '15년 10,628억 달러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ECA 지원 규모는 '12년 이후 감소세 시현 중

\* 지원 실적(중국 제외) : '12년 5,619억 달러 → '14년 5,255억 달러 → '15년 4,471억 달러

### <G7·韓·中 ECA의 여신지원 추이>



### <韓·美·日·加·中 ECA의 여신지원 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11	'12	'13	'14	'15	수출액 <sup>1)</sup>	지원 비중 <sup>2)</sup> (%)
미 국	327	358	273	205	124	15,466	1.7%
일 본	1,225	1,331	1,040	1,120	907	7,302	15.4%
캐 나 다	1,007	878	896	852	751	4,489	19.5%
중 국	3,229	4,300	5,149	5,792	6,157 <sup>3)</sup>	21,572	22.8%
한 국	2,341	2,673	2,680	2,468	2,064	5,524	44.3%
G7·韓中	8,848	10,235	10,680	11,047	10,628	9,333	12.2%

자료: IMF, 각 ECA 연차보고서

주 1) '11~'15년중 각국의 수출액(평균)

2) '11~'15년중 각국 ECA의 여신지원액(평균)/각국의 수출액(평균)

3) 중국 수는 '15년 세부 실적은 비공개로 추정치 활용 ('15년 대외 특혜 차관 포함 총 승인액에서 과거 ECA여신 비중을 적용·계산)

- 유럽·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소규모 중·단기 수출금융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ECA에 대한 기업들의 여신 수요 감소
  - 수출기업들은 최근 저금리 추세, ECA 보다 간편한 지원절차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중국 ECA는 '12년 이후 글로벌 저성장기에도 큰 폭의 외형 성장세를 지속했는데, 이는 주로 중국 ECA의 공격적 영업 전략, 상업은행의 부실여신 증가로 인한 수출금융 지원 여력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 부문별로 보면, 수출금융, 해외투자(M&A, 자원개발) 및 인프라사업(도로, 항만, 철도, 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중국 수은 및 Sinosure 승인실적>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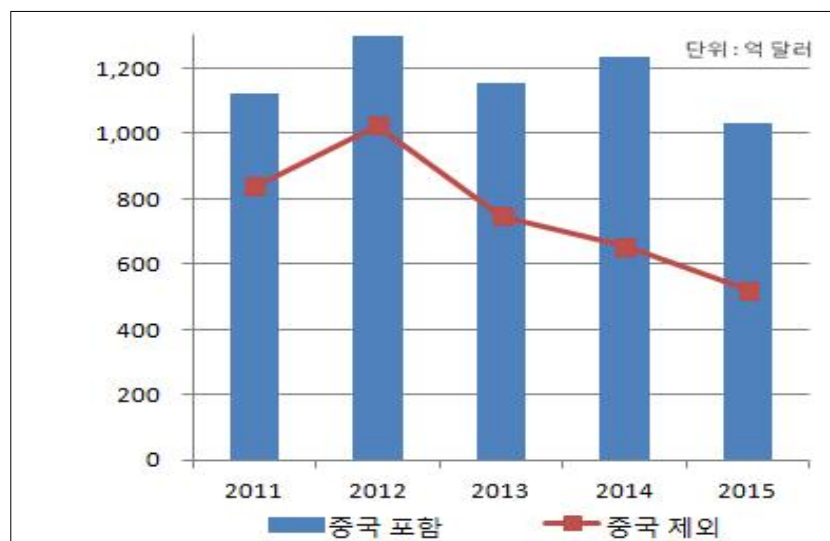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수은	68,998	84,150	117,913	133,582	144,205
Sinosure	253,890	345,830	396,970	445,580	471,500
합 계	322,888	429,980	514,883	579,162	615,705

\* 중국 수는 '15년 실적은 비공개로 추정치 활용

## □ 대형 자원개발, 인프라사업 관련 중장기 수출금융 큰폭 감소

- 세계 주요국(G7, 한국 및 중국) ECA의 중장기 여신(대출기간 2년 초과) 규모는 '15년말 기준 1,030억 달러 규모로 '12년 이후 감소세
  - 특히, 중국의 지원규모를 제외한 중장기 여신 규모는 하락폭이 커져 '15년에는 '12년 1,026억 달러 대비 49.2% 감소한 521억 달러를 기록
- 중장기 여신 규모 감소는 세계 원자재(석유·석탄·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중동지역 및 호주 내 대형 인프라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 글로벌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박의 발주·인도 연기,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 등이 감소 요인으로 지목 ('16. 2. 24, TXF News)

<G7·韓·中 ECA의 중장기여신 지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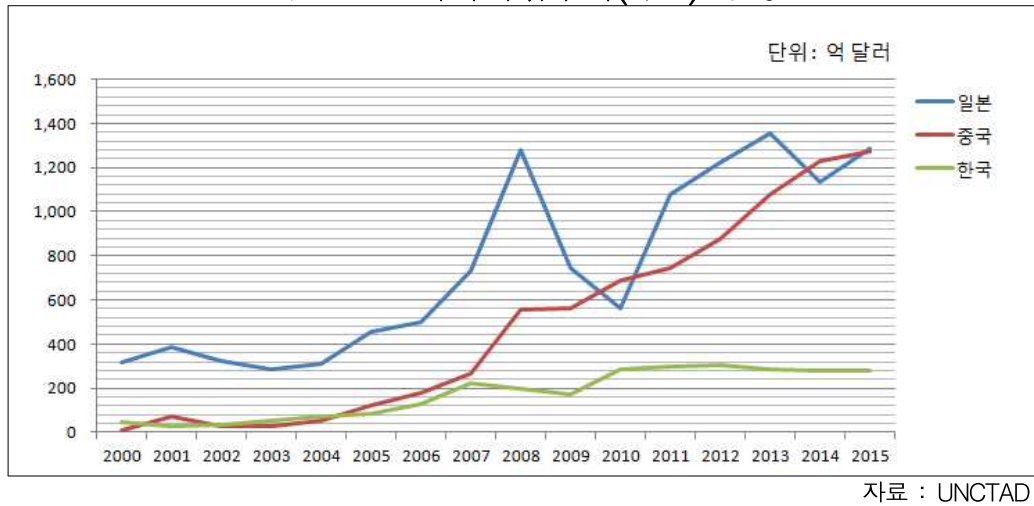


자료 : 미수은 경쟁력 보고서, Berne Union

## □ 아시아 경쟁국의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 관련 여신 증가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무역 규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M&A 목적의 해외투자에 적극적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07년 221억 달러에서 '15년 276억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07년 735억 달러 → '15년 1,287억 달러), 중국('07년 265억 달러 → '15년 1,276억 달러)은 큰 폭 증가

### <韓·中·日 해외직접투자(유출) 동향>



- 韓·中·日 수은의 여신 지원동향을 보면, 모두 최근 5년간 해외사업 관련 여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출 감소를 해외진출 확대로 보완하고자 하는 흐름 시사

#### - 韓·中·日 해외사업자금 여신비중 추이

- 한국: '11년 16% → '13년 19% → '15년 24%
- 중국: '11년 34% → '13년 25% → '15년 26%
- 일본: '11년 64% → '13년 81% → '15년 90%

### □ 산업별 지원 비중

- 주요국 ECA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국의 중점지원 산업에 대한 여신 편중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ECA의 설립 근거가 자국의 전략 수출산업육성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미 수은 (항공 47%, 석유·가스 12%), 일본 JBIC (건설·플랜트 29%, 선박 24%), 캐나다 EDC (자원 22%, 운송 16%) 등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업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중장기 수출 금융지원 위축 전망

-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BASELⅢ('19. 1월 시행 예정) 도입시 상업은행들이 高위험·高액 프로젝트파이낸스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감소하여 ECA에 대한 의존도 상승 전망

**<바젤Ⅲ의 4대 주요 지표 개정(안)>**

1. 자본비율 : 자본비율(8.0% → 10.5%), 보통주비율(2% → 4.5%), Tier1비율(4% → 6%)
2.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 60% → 100%
3. 순안정자본조달 비율 : n.a. → 100%
4. 레버리지 비율 : n.a. → 3~4% 또는 6%

\* 바젤Ⅲ는 '19.1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주요지표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율은 점진적(phase-in) 채택을 추진 중

-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자본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드-프랭크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행 경과 주시 필요

**II. 주요국 ECA들의 대응과 동향****1. 주요국 ECA의 정책 기초**

- **(일본)** 일본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쟁국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 인프라 수출지원 정책으로 '15. 5월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수립
  -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JBIC이 ADB, JICA 등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에 '15년 이후 5년간 1,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투자를 실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JBIC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9월 JBIC법을 개정하여 고위험 해외인프라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신설 등 지원역량 확충
  - 한편, JBIC은 중장기 2015~2017 사업계획에서 중점 지원 사업으로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사업(철도, 수자원, 발전설비), 해외투자(M&A), 중소기업 해외진출, 환경사업 등을 선정
- **(캐나다)** 캐나다 EDC는 2016~2020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자국 기업의 수출거래 지원을 위해 전통적 ECA 기능에 얽매이지 않는 탄력적 금융 상품 제공, 수출거래 촉진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거래 정보 제공, 해외 거래선 알선 등을 중점 사업 목표로 제시

- EDC는 무역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주처-수출기업 연계 프로그램인 견인금융(Pull Facility)를 활성화하는 한편,
- '13년부터는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금융까지 취급하는 등 전방위적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
  - ED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국내 금융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09년 EDC의 국내금융 지원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 후 '14년 제도화하여 정식 도입
- (중국) 중국 국무원은 '15. 3월 정책금융기관(중국 수은, 국가개발은행, 농업은행)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으로 각 정책성 은행의 역할 규정,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명확한 구분, 자본 비율 규제를 포함 리스크 관리의 제도화 등을 추진
- 개편배경으로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 시대가 마감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자금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상업은행과 채권시장 발달로 민간 재원조달 시장이 발달한 상황을 감안하여,
  - 정책은행의 상업적 성격을 제한하고 일대일로 등 중국의 국가 전략 사업에 금융지원 집중 필요성 대두
    - \*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개혁연구소조'를 설립 하여 정책은행 개편연구 추진
- 중국 당국은 정책은행 시장화·국제화 전략에 따라 '15년 중국 수은의 자본금을 확충(450억불 증자)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10.5% 이상)를 도입
- 중국 수은은 중점 지원 목표로 지역별 해외인프라기금, 대외특혜차관, 수출 금융 등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등 국가의 전략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중국 제조업이 'made in china'에서 'created by china'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자국기업의 해외투자(M&A) 지원 확대 추진



## 2. 주요 정책 변화와 특징

### 가. 공적 기능 강화

- 세계 각국은 글로벌 수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ECA의 공적 기능강화, 자본 확충지원 등을 통해 자국 수출 경쟁력 확대에 주력
  - 프랑스 당국은 현재 민간보험사(Coface)앞 위탁운영중인 공적수출보험 업무를 정책금융기관인 Bpifrance\*로 이관하여 공적수출금융 강화 예정('17. 1월)
    - Bpifrance(2012년 설립)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분투자, 대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 여기에 Coface의 보증보험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금융수단을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함
    - 민간보험회사의 indirect guarantee에서 국영기관(Bpifrance)이 발행하는 direct guarantee로 전환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자율이 최소한 4~5bp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 ('16. 2. 10, TXF News)
  - 중국 수은은 '15년 3월 정책금융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정부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정책 금융 지원역량 확충
    - 중국 수은의 기능은 기존 대외교역 관련 수출신용 지원에서 일대일로 사업 등 대외경제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 강화
    - 중국 당국은 '15년 중국 수은 앞 450억 달러를 증자하여 대규모 재원 확충을 단행하고, BIS 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 \* 중국 정부는 3대 정책성 은행(중국 수은,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 은행)에 대해 최저 BIS 비율 10.5% 유지의무를 부과. '15년말 기준 중국 수은 BIS 비율은 12.24%

#### <중국 수은 개혁방안 주요 내용 요약>

- 대외정책금융 등 정책성 업무기능 강화
- 자본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자기자본비율 제도 확립
-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명확화
- 내부 통제 및 외부 감독 강화
- 제도화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 확립



## 나.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 일본,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 각국 ECA들은 해외 고위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인수 확대, 해외사업 관련 여신 취급시 자국산 인정 비율 요건 완화 등의 방법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 지원 역량 강화
- 일본 JBIC은 '15년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능 개편을 단행
  - JBIC은 일본의 해외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高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어 기존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계정 설치('16. 10월)
    - 원금상환불능 리스크 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대출금리 결정시 '상환 확실성' 요건이 면제되고, 손익이 JBIC 일반 회계와 별도 구분되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도국 인프라사업에 필수적인 현지통화 지원 및 다양한 신규 지원수단 마련
    - (현지통화 지원 확대) 개도국 인프라사업에 필수적인 현지통화를 JBIC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현지 진출 일본기업 앞 지원
    - (지원수단 다양화) 해외인프라사업 지원을 위한 투스텝론, 프로젝트 본드 인수, 이슬람 금융 등의 신규 지원수단 추가
- 프랑스, 일본 등은 현지 생산 비중 증가, supply chain 확대 등의 글로벌 무역·투자 흐름을 반영하여 해외사업 지원 요건에서 '자국산'의 지원 기준을 완화
  - 프랑스는 '16년 수출신용정책에서 '프랑스산' 정의 확대, '프랑스산 의무비율'을 축소
    - '프랑스산'에 대한 정의 확대 : 총 마진 및 R&D 비용 포함
    - '프랑스산 의무비율' 축소 : 프로젝트 총규모의 20% (수출보험)

- 일본 JBIC은 자국산 의무비율(30%)\*의 정의를 'made in'에서 'made by'로 변경하고 일본 현지기업 앞 지원을 강화하는 신규 대출 상품인 'Local Buyer's Credit'를 도입('12년)

\* 기존(자국산 30%) → 변경(자국산 10% + 일본 현지기업 20%)

- 자국산 의무비율이 완화되어 제3국 일본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수입자에게도 구매자금 지원가능

## 다. 유럽 ECA의 직접 자금 공급 기능 강화

- 전통적으로 상업은행이 발달한 유럽의 ECA들은 수출거래에 대한 보증·보험을 통한 Risk-Taker 역할을 고수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직접 대출 상품 도입을 확대하여 왔음

### □ 직접대출 도입 현황

- (핀란드) Finnvera(수출 보증·보험 기관)는 자회사인 FEC(Finnish Export Credit)를 통해 중장기 수출거래 및 선박 지원을 위한 'Financing of Export Credits'라는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도입('12년)

\* 동 프로그램은 상업은행과 수출기업과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출자산 양수도가 이루어지며, Finnvera의 pure cover가 제공

- (이탈리아) SACE는 수출거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공적기관인 CDP(Cassa Depositi e Prestiti)가 실제로 대출을 제공하는 buyer's credit 형태의 직접대출을 도입('12년)

\* CDP: 이탈리아 정부가 80%의 지분을 보유한 정책투자기관으로 공공투자(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을 활용하여 경제개발 촉진(1850년 설립)

- (영국) UKEF는 '14년 자국 수출기업의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Direct Lending Facility를 도입하였는바, 수요가 높아 총 한도를 15억 파운드에서 30억 파운드로 증액

- (프랑스) 프랑스의 공적기관인 SFIL\*은 Coface의 지급보증을 수반한 상업은행의 대출을 이관(수출금융 대출 자산중 95%) 받아 re-financing을 지원('15년)

\* SFIL: 프랑스 정부가 지분의 75% 보유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지역개발 프로젝트 (병원 등)에 대한 refinancing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설립

- 재원조달은 양도된 대출 자산을 근거로 covered bond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지원규모는 최소 거래단위 7천만달러, 연간 최대 지원 목표는 25억 유로로 설정하여 운용

## 라. 수출 간접 지원 상품 도입 확대

- 캐나다 ED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거래 발생전 잠재적 해외 거래선에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계약 체결을 견인해오는 견인금융(Pull Facility) 도입을 확대

- EDC의 Pull Facility는 무역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발주처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先금융 지원후 자국기업과 수출거래를 matching하여 지원

\* TCS (KOTRA와 같은 무역관련 정보제공 기관), BDC (캐나다의 정책성 중소기업은행) 등

- '03년 도입 후 '15년까지 총 706억 캐나다 달러, 5,775개 캐나다 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를 실현
- 한편, EDC는 국내 수출 초보기업 지원을 위해 'Connect Strategy'를 '15년 도입하여 국내기업 수출 촉진
  - 초보 수출기업 앞 지분투자를 지원하고, 이 기업의 네트워크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잠재고객을 발굴, 견인금융 前단계에서 자국기업 앞 지원을 한층 더 강화

- 유럽의 ECA들은 '09년 이후 자국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前단계에서도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을 적극 도입

- 스웨덴, 헝가리, 핀란드 등이 간접 지원 상품을 도입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의 前 단계인 설비 투자'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ECA의 역할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음

## &lt;국가별 ECA 간접상품 내용&gt;

구 분	주요 내용
스웨덴 EKN (Investment Credit Guaran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직원 250명까지)</li> <li>- 지원규모 : 투자 소요금액의 50%까지</li> <li>- 지원범위 : 국내 공장건설, 생산설비 투자 등</li> <li>- 보증기간 : 24개월 이내</li> </ul>
헝가리 수은 (Capital Asset Investment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소기업</li> <li>- 지원규모 : 투자 소요금액의 80%까지</li> <li>- 지원범위 : 국내 생산설비 (기계, 중장비) 투자, 상업 건물 취득, 공장 건설·리모델링 등</li> <li>- 대출기간 : 2년~5년</li> </ul>
핀란드 Finnvera (Finnvera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직원 250명까지)</li> <li>- 지원규모 : 최소 1만 유로</li> <li>- 지원범위 : 설비투자(기계·중장비), 운전자본, 국내사업 (건설, 환경, 에너지 사업) 등</li> <li>- 대출기간 : 3년~15년</li> </ul>

- 캐나다 ED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국내금융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09년 EDC의 국내금융 지원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한 후 '14년 이를 영구 허용하면서 수출거래 前단계에서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EDC는 이를 활용해 초보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 수출계약과 연계되지 않은 설비자금, 국내 M&A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국의 수출기업 육성 기반 지원
- 중국 수은은 수출 前단계에서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신축, 확장, 개조 등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상품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2년 도입)

## III.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규모 축소에 따른 주요국 ECA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한 **침병으로서의 ECA 기능 강화**는 세계적 추세
- 기능강화의 방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 강화, 대규모 자본 증자,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계정 설치, 보증·보험 위주의 간접 지원에서 직접 자금 공급 기능 확대 등으로 대응

- 일본,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관련 재원조달 확충** 필요
  - 일본의 경우 '15. 5월 인프라 수출지원책을 마련하고 JBIC 주도의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JBIC 내에 특별계정 설치 등의 정책 기능 강화 및 금융지원 방안 수립
  - 중국은 '15. 3월 정책금융기관 개혁방안을 통해 중국수은의 정책성 기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사업 등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금 증자 단행
-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에 따라 해외사업 수행시 자국산 원자재 조달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투자 요건 완화** 검토 필요
  - 프랑스의 경우 수출금융 지원시 자국산 인정비율에 총 마진 및 R&D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16년), 일본은 구매자 금융 취급시 제3국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지원범위에 포함('12년 도입)
- 수출활성화를 위해 과거 수동적 '수출입거래에 따른 금융지원'에서 능동적 **수출견인** 및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관련 금융지원 비중 확대 필요
  - 캐나다 EDC는 수출계약이전 해외 수입자에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자국산 수출을 유도하는 견인금융을 적극 시행 중이며,
  - 유럽 ECA들은 '수출의 전 단계인 설비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확대 시행중